

## 杜谷 洪宇定の 일생과 시작 활동에 관한 고찰\*

— 천안 유배기를 중심으로 —

신 영 주\*\*

<目次>

- |                   |                         |
|-------------------|-------------------------|
| I. 머리말            | III. 천안 유배기의 시작 활동에 관하여 |
| II. 두곡의 일생과 천안 유배 | IV. 맺음말                 |

<국문 초록>

두곡 홍우정은 문장이 雄健하고 奇崛하며 특히 詩에 뛰어나다는 평을 들었던 문인이다. 스스로 자신이 詩律에 관심을 두지 않으며 雕蟲은 말할 것이 못된다고 말하면서도 “두보 이후로 적막한데, 천년 뒤에 다시 누가 계승하려나?”라고 하여 두보의 계승자가 되고자 하는 의중을 보이기도 하였다. 부제학을 지낸 洪慶臣이 그의 시를 보고서 인력으로 미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무릎을 치며 칭송하고, 趙國賓이 국가를 살릴 솜씨라고 경탄하였다. 이는 그의 시가 뛰어난 경지에 올랐음을 말해준다. 두곡이 시에서 보여준 성취 수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겠으나, 그가 구현한 시의 독특한 경계가 세상의 시인묵객들을 놀라게 만든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본고는 두곡 홍우정이 거쳤던 일생의 행적을 살펴보고 그의 독특한 시 창작 활동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그의 시인으로서의 면모를 조금이나마 드러내고자 하였다. 특히 천안에 부처되었을 때에 창작한 것으로 보이는 몇 수의 시를 선별하여 분석해보았다.

【주제어】 杜谷, 洪宇定, 洪可臣, 崇禎處士, 九峯書堂

\* 이 논문은 2016년도 성신여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성신여자대학교 부교수 / syj@sungshin.ac.kr

## I. 머리말

杜谷 洪宇定은 문장이 雄健奇崛하고 특히 詩에 뛰어나다는 평을 들었다. 「詩律」<sup>1)</sup>이라는 시에서, 자신이 詩律에 관심을 두지 않으며, 雕蟲은 말할 것이 못된다고 하면서, “두보 이후로 적막한데, 천년 뒤에 다시 누가 계승하려나?”라고 하여 스스로 두보의 계승자가 되고자 하는 의중을 보인 바 있다. 다만 그가 성취한 시 작품들이 과연 두보를 계승한 것이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별도의 섬세한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적어도 그가 시 창작에 있어서 두보를 모범으로 삼아 각별하게 임하였다는 사실은 엿볼 수 있다. 부제학을 지낸 洪慶臣(1557~1623)은 그의 시를 보고서, 인력으로 미칠 수 있는 바가 아니라고 무릎을 치며 칭송하였고, 趙國賓(1570~?)은 국가를 살릴 숨씨라고 경탄하였다고 한다.<sup>2)</sup> 구체적 시 작품을 근거로 이렇게 비평한 것은 아니고 전반의 인상을 말한 것이다. 이들의 말을 더 확장해서 논하기는 어렵고, 또한 두곡이 시에서 보여준 성취 수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평가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가 구현한 시의 독특한 경계가 세상의 시인묵객들을 놀래게 만든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본고는 두곡 홍우정의 일생 행적을 살펴보고 그의 독특한 시 창작 활동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그의 시인으로서의 면모를 조금이나마 드러내고자 한다. 특히 본 학술대회가 온양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천안에 부처되었을 때에 창작한 것으로 보이는 몇 수의 시를 선별하여 분석해보고자 한다.

- 
- 1) 洪宇定, 『杜谷集』 권2, 「詩律」, “詩律非關事, 雕蟲不足稱. 自然心可愛, 時復興堪乘. 馬上句多得, 枕邊吟每能. 寥寥杜陵後, 千載更誰承.”
  - 2) 李象靖, 『大山集』 권50, 「杜谷洪公行狀」, “爲文章, 雄健奇崛, 尤長於詩. 從祖祖鹿門公, 每得其所著, 擊節稱賞, 以爲非人力所及. 趙侍郎國賓有藻鑑, 見公文驚歎, 以爲活國手段云.”

## II. 두곡의 일생과 천안 유배

병자년에 호란이 발생하자 두곡은 모친을 모시고 영남 태백산 아래로 이사하였다. 臥丹의 杜谷에 玉溜菴이라는 거처를 마련하여 머물러 있었다. 얼마 후 선조가 남한산성에서 나와 叩頭의 예를 갖추었다는 소식을 접한 뒤로는 되돌아갈 뜻을 모두 접고 그대로 눌러앉게 되었다. 명이 멸망한 이후로는 의관을 갖추어 착용하는 것도 하지 않았다. 언제나 황색의 짧은 短衣에 말총갓과 짙은 차림을 하고 새끼줄로 만든 띠를 허리에 두르고서 장사치나 하류의 인물들과 뒤섞여 어울렸다. 더구나 북쪽을 향해서 앉지도 않았다고 한다.<sup>3)</sup> 소극적 방법일지언정, 전란을 전후한 시기 국가의 대응에 대한 아쉬움과 청에 대한 반감을 표출하고자 한 것이었다.

이무렵 두곡이 남긴 아래의 시구는 오랫동안 인구에 회자되었다.<sup>4)</sup>

大明天下無家客    대명천지에 집 없는 나그네  
 太白山中有髮僧    태백산 속 머리 기른 중이랴오.

터전이 있던 한양을 등지고 태백산 아래로 내려와 머물던 두곡은 스스로를, 대명천지에서 은둔자로 살아가는 집 없는 나그네요, 머리 기른 중으로 규정하였다. 중화의 정통을 잊지 못한 만주의 胡가 중원을 장악하여 명을 밀어내고 조선을 능욕한 작금의 무도한 현실로부터 거리를 두고자 한 것이다. ‘집 없는 나그네’라는 말은 그가 아직은 이곳을 자신의 마지막 정착지로 생각하지 않았으며, 언제든 다시 한양의 본가로 돌아가 나그네 신세를 청산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또 ‘머리 기른 중’이라는 말은, 그가 세상을 등지고 인간사를 멀리하여 마치 출가한 승려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으나, 이것이 결코 유가의 강상과 윤

3) 安廷球, 『梓鄉誌(順興邑誌)』, 「忠節·洪宇定」.

4) 洪宇定, 『杜谷集』 권2, 「無題」.

리를 저버려 亂倫의 죄를 짓고자 한 것이 아니라, 부득이 잠시 무도한 현실을 피해 승려와 같은 행색을 하고 있는 것일 뿐임을 스스로 밝힌 것이다.

울분과 체념이 뒤섞인 복잡한 심사는 이후 생애 전반에 걸쳐 가장 오랫동안 깊숙하게 그의 정서와 현실 인식에 영향을 끼쳤다. 두곡은 청풍의 寒碧樓에 올라 이렇게 시를 짓기도 하였다.<sup>5)</sup>

宇宙一男子	宇宙 사이의 한 사내가
清風寒碧樓	청풍 寒碧樓에 올라
憑欄發長嘯	난간에 기대 긴 휘파람 부니
江月五更秋	강에 달 비춘 가을 五更이네.

비록 청풍의 궁벽한 곳에 물러나 있는 몸이지만 자신의 존재에 대한 자긍과 기개는 조금도 위축되어 있지 않다. 드넓은 우주 사이에서 깨끗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 명의 사내대장부로서, 어떤 외침에도 굴하지 않을 수 있고 온 천하를 뒤덮을 수도 있을 만큼 큰 기개가 있음이 느껴진다. 그러면서도 가을 산천 이른 새벽 청풍의 고요한 정취를 한가롭게 관조하고 있는 시적 감수성도 함께 보여주고 있다. 이 시도 오랫동안 한벽루에 걸려 있으면서 마찬가지로 널리 인구에 회자되었다.<sup>6)</sup>

두곡은 말 수와 웃음이 적고 성품이 엄정하여 절의를 소중하게 여겼다. 그러나 작은 예절에는 구애되지 않았던 인물이다. 평소 생활은 몹시 검소하였다. 해진 옷을 입고 거친 음식을 먹으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늘 태연하였다. 그 정도가 예사롭지는 않았는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 깜짝깜짝 놀랄 정도였다고 한다. 그러나 때로 시국을 한탄하고 나라를 걱정하면서 서쪽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곤 하였다고 한다. 세상 사람들이 그를 崇禎處士로 불렀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sup>7)</sup>

5) 洪宇定, 『杜谷集』 권1, 「寒碧樓」.

6) 姜再恒, 『立齋遺稿』 권3, 「寒碧樓」, “更吟壁上什, 宇宙此長留.”

두곡의 일생을 평한 기록으로는, 영조 32년(1756)에 조정에서 禮官을 보내어 가묘에 致祭하면서 올린 제문을 참고할 수 있다. 이때에 제문을 작성하면서 청나라의 연호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도 특이하다.<sup>8)</sup> 마음속으로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소중하게 지키고 청나라에 굴복하려 하지 않았던 두곡의 생전의 뜻을 존중한 특별한 배려였으리라 여겨진다. 제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sup>9)</sup>

孔稱逸民	공자가 逸民을 일컬은 것은
潔身高蹈	潔身과 高蹈로 인함인데
惟爾貞節	그대는 貞節을 지켜
嘉邈懷道	아름답게 은둔하여 도를 품었지
腥氛漢南	남한에서 유린되어
冠屨倒置	관모와 신발의 위치가 뒤바뀌자
蹈海入山	바다 건너고 산에 들어가
千古同歸	옛사람처럼 돌아갔어라
篠簣混跡	은자들과 뒤섞여
戴笠擔簞	삿갓 쓰고 우산을 메고 있는
箕壤高士	기자 나라의 高士요
明室遺民	明室의 遺民이로다
孰知苦心	애쓴 그 마음을 누가 알아서
匪曰亂倫	亂倫이라 말하지 않으려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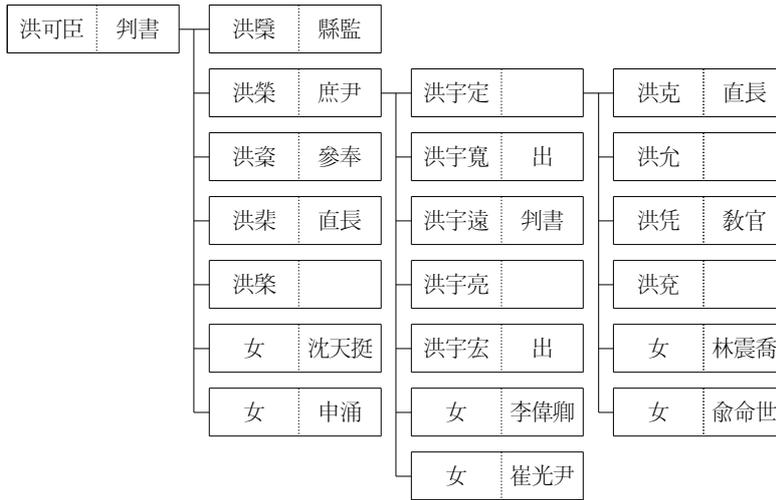
이 제문은 영조의 명을 받든 예관이 치제하면서 올린 것이다. 국가의 공식 입장을 드러낸 발언이라는 성격을 갖는다. 이 제문에서 두곡은 공자가 말했던 逸民으로 규정되었고, 明室의 遺民으로 규정되었다. 그가 여러 차례 소명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아가 현실 정치에 종사하지 않고서, 깊은 산골에서 깨어있는 은자로서 살고자 한 것이 逸民에 가까

7) 安廷球, 『梓鄉誌(順興邑誌)』, 「忠節·洪宇定」.  
 8) 李象靖, 『大山集』 권50, 「杜谷洪公行狀」, “丙子遣官賜祭, 而不書時行年號.”  
 9) 洪宇定, 『杜谷集』 권5, 附錄, 「致祭文 英廟丙子[元仁孫行]」.

운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세상에서 崇禎處士로 일컬어질 만큼 명에 대한 의리가 강고하였으니, 明室의 遺民이라는 평가도 지나친 것은 아니다.

아래에 홍우정의 일생에 대해 행장 등을 참고하여 간략하게 소개한다.

<가계도><sup>10)</sup>



洪宇定은 자는 靜而이고 호는 杜谷, 桂谷이고 시호는 介節이다. 본관은 南陽이다. 한성 서운 洪榮과 이조판서 許箴의 딸 사이에서 선조 28년(1595)에 태어나 효종 7년(1656)에 별세하였다. 선조 때에 문학과 행의로 알려졌던 조부 洪可臣(1541~1615)은 홍주 목사로 있으면서 李夢鶴의 난을 평정하고 형조 판서를 지냈으며 사후에 우의정, 寧原府院君에 추증되었다.

두곡이 진사가 되던 광해군 8년(1616)에 장인 해주목사 崔沂가 역모

10) 『(影印標點)韓國文集叢刊 해제』 8집(한국고전번역원, 2010)의 『두곡집』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로 몰려 옥중에서 세상을 떠났다. 이때 두곡도 이 사건에 휘말려 여러 달 옥에 갇혀 있다가 천안에 부처되었다. 이후 인조가 반정한 이후에 신원될 수 있었다. 처음에 옥에 갇혀 있을 때에 회유하는 자의 말을 듣지 않고 “죽고 사는 것은 운명이다. 나는 도를 굽혀 살기를 구하지 않을 것이다.[死生命也, 吾不枉道以求生.]”라고 강고하고 엄정한 태도로 일관하여 목숨이 위태로웠었다. 그러나 결국 재상 元斗杓와 판중추부사 李澗의 도움으로 살아날 수 있었다.

병인년(1626)에 부친상을 마친 뒤에는 유일로 천거되었으나 사양하였다. 또 잡저에 있던 효종의 사부로 천거되었으나 응하지 않았다. 신미년(1631)에 내자시 직장에 제수되었으나 응하지 않았고, 계유년(1633)에 사재감 직장에 제수되자 잠시 나가서 사은숙배하였을 뿐이었다.

42세가 되던 병자년(1636)에는 봄에 서북 지역 변경의 방비를 담당하는 안주 목사로 거론되었으나 이곳을 書生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자가 있어서 마침내 취소되었다. 이 해 겨울에 청나라 군사가 국경을 넘어 침범하는 일이 발생하자 공은 모친을 모시고 영남으로 거처를 옮겨 태백산에 은둔한 것이었다. 청군이 물러난 뒤에도 돌아가지 않고 그대로 영남에 머물렀다. 이로부터 영남에서 崇禎處士로 일컬어졌다고 한다. 봉화에 위치한 文殊山 아래의 杜谷泉이라는 곳에 玉溜庵이라는 작은 암자를 마련하고 杜谷崎人이라고 자호하였다.

54세가 되던 무자년(1648)에는 한 대신이 공을 천거한 일이 있었는데, 인조가 “내가 그의 이름을 이미 들었다. [予已聞其名矣.]”라고 하였다. 이어서 특별히 공조좌랑에 제수하였고, 다시 태인 현감으로 옮겨 제수하였으나 모두 사양하고 나아가지 않았다. 모친의 상을 마친 을미년(1655)에는 61세의 나이로 사재감 주부에 제수되었는데, 사은하고 돌아왔다.

이후 효종 7년(1656)에 향년 62세로 별세하였다. 90년이 지난 영조 22년(1746)에 경연 신하의 건의로 특별히 이조참의에 추증하였다. 이때 추증하는 教旨에 본래의 직함을 기록하지 않고 단지 ‘崇禎處士洪某’라고

기록하였을 뿐이었다. 당시에 쓰던 청나라 연호도 사용하지 않았다. 영조 32년(1756)에는 특별히 예관을 보내 가묘에 致祭하였다. 정조 19년(1795)에 여러 고을 선비들이 두곡의 九峰書堂에 위패를 모셨으나 3년 뒤인 정조 22년(1798)에 국가의 금령에 따라 훼손되었다. 이후 순조 8년(1808)에 이르러 유허비를 세워 징표로 삼았다.<sup>11)</sup> 그리고 다시 10여 년이 지난 순조 20년(1820)에는 이조 판서에 추증되고 ‘介節’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 Ⅲ. 천안 유배기 시작 활동에 관하여

두곡은 문집으로 본집 5권과 속집 2권이 전해진다. 본집에는 시가 3권 남짓을 차지하고 있는데, 1권에서 4권까지 315제 413수의 시가 실려 있고, 권4에 2수의 賦 작품이 실려 있다. 또 속집에는 권1에 50제 52수의 시가 실려 있다. 따라서 현재 문집을 통해 전해지는 시 작품은 총 365제 465수가 된다.

시의 배열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편차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시집의 체제는 대개 처음부터 연차 순으로 배열되거나, 시체 별로 먼저 분류한 뒤에 각 시체 안에서 다시 연차순으로 배열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연차를 무시하는 경우는 드물다.

아마도 두곡의 시집은 저자 생전에 정리된 초고 형태로 묶여 있지 않았던 듯하다. 아니면 정리된 초고가 일실되어 사후에 새로 각처에서 수습하여 엮는 중에 창작 시기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여 연차 배열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수도 있다. 일부러 연차를 무시하고 정리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두곡의 문집에 실려 있는 시들은 실제로 시간과 공간을 유추할 수 있

11) 安廷球, 『梓鄉誌(順興邑誌)』, 「忠節·洪宇定」.

는 정보가 상당히 제한적으로 남아있다. 이런 까닭에 두곡의 생애 분기 별로 시를 구분하여 읽기는 쉽지 않다. 본고에서는 천안 유배기에 창작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몇몇 시작품을 추출하여 감상하여 보고자 한다. 다만 이 시기의 작품을 추출하기가 쉽지 않아 적지 않은 오류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바, 관련 연구를 위해서는 추후에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먼저 이 시기에 창작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권차	제목	창작 시기
1	본집	1	「自歎」	1621
2	본집	1	「馬上 二首」	
3	본집	1	「登廣德山」	
4	본집	1	「得馬上 三首」	
5	본집	1	「謝飲酒」	1621
6	본집	1	「晨興」	
7	본집	2	「自廣德山 投徐秀夫挺然家 呼韻 二首」	
8	본집	4	「登古城賦 城在天安縣」	
9	속집	1	「悶 謫在天安時」	
10	속집	1	「稿奉梳庵老兄行軒」	1625년 7월
11	속집	1	「稿奉行軒」	
12	속집	1	「奉贈梧亭行臺」	1620년 8월

아래에서 이 가운데 몇 수를 시 성격에 따라 분류하여 읽어본다.

### 1. 체념과 달관의 노래

아래는 「馬上」<sup>12)</sup>이라는 제목으로 창작한 두 수의 연작시 가운데 첫 수이다.

12) 洪宇定, 『杜谷集』 권1, 「馬上 二首」.

旭日開天地	아침 해에 天地가 열려
江山一眼前	江山이 눈앞에 펼쳐지는데
遲遲羸馬足	더디 걷는 야윈 말에서
望望故園煙	멀리 고향의 연기 바라보노라
此路行偏熟	이 길이 몹시 익숙한데
何年釋倒懸	언제나 倒懸에서 풀려날는지
牢愁排不去	깊은 근심 사라지지 않고
悶悶滿胸填	답답함 가슴에 가득하네

두곡이 20여세 무렵에 창작한 시로 추정된다. 경련의 ‘이 길이 몹시 익숙한데, 언제나 倒懸에서 풀려날는지’에서 두곡이 자유롭지 못한 몸이 되었던 때에 지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倒懸’은 거꾸로 뒤집혀 매달려 있다는 말로, 지극히 힘겨운 상황에 처하여 있음을 이른다. 그런데 시의 내용으로 보면, 두곡이 천안에 부처되어 막 내려가던 때를 노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위에서 언급한 말들은, 중도부처의 형을 받고서 이전에 익숙하게 오갔던 길을 통해 천안으로 내려가는 장면을 시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보인다. 두곡의 先代에 운양에 터전이 마련되어 있었다.

아래는 연작시 두 수 가운데 둘째 수이다.

聽鷄戴月著吾鞭	해치는 달빛 아래 채찍을 드니
冷露霏霏浥曉天	찬 이슬 霏霏하게 새벽하늘 적시노라
世亂惟聞歌出塞	난세엔 出塞의 노래 부를 뿐
時危誰是賦歸田	위태한 시절에 누가 歸田을 노래하라
千般苦思詩中遣	천 가지 괴로움을 詩로 달래고
八尺孤身馬上眠	팔 척 孤身은 말에서 잠들어라
堪笑此生知幾許	우습구나, 이 생애가 얼마쯤일까
電然虛負廿餘年	번개처럼 20여 년을 허망하게 보냈구나

미련의 ‘번개처럼 20여 년을 허망하게 보냈구나’에서 20세를 넘긴 시기에 창작한 시임을 확인할 수 있다. 앞 시에서 보았듯이, 중도부처의

형이 막 시작된 지금으로서는 어느 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풀려날 수 있을지 예측할 수조차 없어 답답한 노릇이었을 것이다. 지난 세월과 앞으로의 세월을 점검하며 깊은 상념에 잠긴 모습을 보여준다.

국가가 危亂한 상황에 목숨을 던져 충절을 다하지는 못할지언정, 도리어 歸田하여 무엇도 할 수 없는 처지로 묶여 있게 되었으니, 이런 자신의 신세가 무척이나 안타깝게 느껴졌을 터이다. 이로 인해 밀려드는 끝없는 고뇌를 오직 詩로써 달래어 해소할 뿐이라고 고백하고 있다.

아래는 「悶」<sup>13)</sup>라는 시이다.

首疾牢愁覺夜長	깊은 근심 두통에 긴 밤 지새며
飲冰飲枕九回腸	얼음 먹고 베개에 기대도 창자 뒤틀리는데
三千罪大逃無地	삼천 죄 으뜸인 불효를 지은 몸
二十年逾死不殤	이십 세 넘었으니 죽어도 요절은 아니라
天上可令歸靜逸	천상에 가면 고요할 것인데
人間已久滯塵形	속세에 머문 지 이미 오래라네
悲吟苦嘯重興歎	슬피 읊조리고 거듭 탄식하니
鷄唱殘更月滿床	닭 우는 새벽 침상에 달빛 가득하노라

이 시는 제목 아래에 ‘천안에 유배되었을 때다 [謫在天安時]’라는 주가 달려 있다. 또한 ‘이십 세 넘었으니 죽어도 요절은 아니라’라고 한 세 번째 구로 보아도 20대 시절에 창작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천안에 부처되었을 때에 창작한 시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이 시는 다른 시와는 달리 상당히 격한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그가 얼마나 참담한 심경이었는지를 짐작케 한다. 역모에 휘말려 부처의 형을 받아 국가의 죄인이 되었을 뿐 아니라, 이로써 결국 3천 가지 죄 가운데 가장 크다는 불효를 짓고 만 현실이, 이제 20세를 갓 넘은 두곡으로서는 아직은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었던 듯하다. 이 때문에 깊은 근심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서 답답한 심사를 풀어내려고

13) 洪宇定, 『杜谷集續集』 권1, 「悶[謫在天安時]」.

얼음을 삼켜보지만, 아무런 효험도 없어 여전히 창자만 뒤틀릴 뿐이다.

20세를 넘겼으니 이제 죽더라도 요절한 사람이 되지는 않는다는 말은, 그가 삶에 대한 희망의 끈마저 벗어 놓고 싶을 만큼 극심한 고뇌와 우울감에 빠져있었음을 보여준다. 천상에 올라가면 고요할 수 있다는 말에도 그의 심경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그가 맞닥뜨린 현실은 모든 것을 체념하게 만들만큼 거대한 시련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아래는 「自歎」<sup>14)</sup>이라는 시이다.

微月輝輝夜欲深	밤 깊어 가는 달빛 밝아지는데
荒庭處處苦蟲吟	거친 정원 곳곳에 고된 벌레 울음
六年逐客饒愁思	유배객 육년에 근심 깊어
三尺孤琴供好音	세 척 외로운琴을 통기노라
北極正臨天似玉	北極이 곧게 서 하늘이 玉 같고
西風乍起節歸陰	문득 西風에 계절이 서늘해지는데
浮生荏苒將焉薄	浮生이 그럭저럭 다해가고
人事蹉跎愧夙心	인생사 부질없어 부끄러울 뿐이네

6년 유배객이라는 말을 근거로 천안에 부처된 지 6년이 지난 1621년 경에 창작된 시라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자신의 포부를 위해 한창 미래를 준비해야 할 젊은 20대 시절의 대부분을 유배객의 신세로 보내야 했던 두곡의 심경은 이러한 것이었다. 깊은 밤 황량한 정원 한쪽에서 이름 없이 울어대는 풀벌레의 소리가 고된 심상에 각인되고 있다.

그렇지만 그가 좌절과 체념으로 일관한 것만은 아니었다. 처음에 느꼈던 극도의 불안과 좌절감은, 유배 생활 6년이 지나면서 체념을 거쳐 이제 어느 면에서는 달관한 지경에 도달한 듯이 보이기도 한다. 실제로 이 시기 두곡에게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현실에 대한 원망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14) 洪宇定, 『杜谷集』 권1, 「自歎」.

## 2. 일상과 희망의 노래

아래는 「登廣德山」<sup>15)</sup>이라는 시이다.

獨立千峯上	홀로 천 봉우리 위에 서니
風行天地秋	천지에 바람이 이는 가을이라
眼遊青海外	푸른 바다 밖을 바라보고
心著白雲頭	흰 구름 끝에 마음을 붙이네

제목 외에 시기 추정을 가능하게 하는 시어는 보이지 않는다. 오직 廣德山에 올라서 지었다는 제목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광덕산은 현재 천안시 광덕면과 아산시 송악면의 경계에 위치한 해발 699미터 높이의 산이다. 백제 시대에 창건한 것으로 추정되는 광덕사라는 고찰이 있어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두곡이 천안에 부처되었던 시기 외에 광덕산에 올랐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우뚝한 광덕산 위에 홀로 올라 선 두곡은 천지 사이를 흘러 지나가는 바람을 맞으면서 가을을 음미하고 있다. 푸른 바다 밖 먼 곳을 바라보고, 흰 구름 끝에 마음을 붙이고 있는 그의 모습에선 잠시나마 어떤 고뇌의 모습도 발견할 수 없다.

아래는 「得馬上」<sup>16)</sup>이라는 제목으로 창작한 세 수의 연작시이다. 문집에는 「登廣德山」의 바로 뒤에 배열되어 있다.

山谿踏石馬蹄鳴	계곡 돌을 밟는 말발굽 소리
斂策徐行鳥不驚	채찍 거두고 서행하니 새가 안 놀라
煙樹遠連秋水澤	멀리 이어진 안개 숲에 가을 연못이요
亂峯多傍夕陽城	亂峯 곳곳에 석양 비추는 성이로다
每憑雙眼收詩興	매번 雙眼에 기대어 詩興을 일으키고

15) 洪宇定, 『杜谷集』 권1, 「登廣德山」.

16) 洪宇定, 『杜谷集』 권1, 「得馬上 三首」.

期立孤身動世名    孤身を 일으켜 世名을 얻기를 기약하니  
 休道此生時已晚    이 생애가 때 늦었다 말게  
 姜公八十始鷹揚    姜公도 팔십에 비로소 鷹揚했어라

이는 세 수 가운데 두 번째 시이다. 말을 타고서 저물녘에 석양이 비추고 안개가 덮인 가을 계곡을 지나다가 시상이 떠올라 읊은 시로 보인다. 시인은 풀벌레가 소리 내고 새가 지저귀고 있는 고요한 계곡의 본연의 모습을 느끼고 싶었던 듯하다. 고요를 흔들지 않으려고 자갈에 부딪는 말발굽 소리조차 조심하고 있다. 채찍을 거두고서 서서히 지나면서 시각과 청각의 감각 기관을 예민하게 유지하여 자연 경물 곳곳에서 시상을 일으키고 있다.

‘孤身を 일으켜 世名을 얻기를 기약하니’라는 여섯 번째 구의 말에서 이 시가 천안 시절에 지어진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아직은 세상에 대한 기대와 자신의 역할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지 않았던 20대 시절에 자신이 마음에 품고 있던 회포를 노래한 것이다. 멀지 않아 다시 세상에 나아가 자신의 포부를 실현하고 명성도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 ‘이 생애가 때 늦었다 말게, 姜公도 팔십에 비로소 鷹揚했어라’라는 미련의 말에서 그의 속마음이 그대로 드러난다. 아직은 때가 아닌지라 산야를 노닐며 詩興을 얻는 것으로 일상을 삼고 있으나, 미래에 대한 확신은 희망적인 것이었다.

아래는 서장관 梧亭에게 올린 「奉贈梧亭行臺」<sup>17)</sup>라는 시로 만력 경신년(1620) 8월에 창작한 것이다.

季子朝周去    계절이 사신으로 주나라에 가듯이  
 星槎鴨水湄    사행이 압록강을 건너니  
 秋風吹別夢    秋風은 작별의 잠을 깨우고  
 春鴈報歸期    春鴈은 돌아올 때를 알려주리라

17) 洪宇定, 『杜谷集續集』 권1, 「奉贈梧亭行臺」.

地闊盧龍塞 盧龍의 변경 땅 광활하고  
 雲寒孤竹祠 孤竹의 사당에 구름 차가운데  
 壯遊諧宿願 壯遊의 목은 소원을 이루어  
 吟遣幾篇詩 몇 수나 시를 읊어낼는지

경신년 늦가을에 시작되어 이듬해 봄에 끝날 사행의 서장관으로 참여할 梧亭을 전송하는 의미로 지어 보낸 시이다. 梧亭은 卞三近(1579~1648)의 호이다. 광해군 3년(1611)에 치러진 별시 문과에서 병과로 급제하여 말년에 형조 참판에 올랐던 인물이다. 인조 19년(1641)에도 진하 겸 진주사의 부사로서 연경에 다녀온 바 있다. 이때 정사는 麟坪大君이었고 서장관은 洪處亮이었다.

두곡과 변삼근의 교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만한 다른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오직 위의 시를 통해서 두 사람이 평소 壯遊에 관한 기대를 서로 이야기했음을 짐작할 뿐이다. 처신이 자유롭지 못한 신세로 있는 현재의 두곡 자신으로서 연을 수 없는 연행이었다. 두곡은 부러운 시선으로 연행을 떠나는 오정을 전송하면서, 오가는 길에 얼마나 많은 시를 지어올지 기대하고 있다. 이들이 시로써 교류하였음을 보여준다.

아래는 「晨興」<sup>18)</sup>이라는 시이다.

晨興無賴坐燒香 새벽에 일어나 무료하여 향 피우고 앉아  
 暗筭吾生即可傷 내 삶을 생각해보니 안타까워라  
 多亂世中逾二十 혼란한 세상에서 20년을 넘기고  
 少間愁裏度尋常 잠시 수심 속에서 일상을 보내노라  
 空壺倒地蛛爲室 뒤집힌 빈 병엔 거미집 짓고  
 塵卷頹牀蠹自當 상에 쌓인 먼지 덮인 책엔 좀이 스는데  
 開戶仰天天漠漠 문 열고 하늘 보니 漠漠한 하늘에  
 曉星殘月共蒼茫 曉星과 殘月이 함께 허공에 있구나

18) 洪宇定, 『杜谷集』 권1, 「晨興」.

“혼란한 세상에서 20년을 넘기고”라는 세 번째 시구에서 20세를 막 넘긴 시기에 이 시가 창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네 번째 시구에서 “잠시 수심 속에서 일상을 보내노라”라고 하였듯이 천안에 부처되고서 얼마쯤 시간이 지나 조금은 안정을 되찾았던 시절에 해당하는 것이 아닐까 짐작된다. 부처된 초기에 드러나던 격한 감정의 굴곡이 이 시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 다만 아직은 새벽에 벌써 무료해질 만큼 生氣와는 거리가 멀고, 도무지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거미가 줄을 쳐놓은 뒤집힌 빈 병과 책상 위에 쌓여 먼지에 뒤덮인 서책은, 평탄하던 인생의 행로를 지나다가 뜻하지 않게 풍파가 몰아쳐 의지로 내팽개쳐진 듯이 떠밀려 내려온 자신의 처지를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처지를 비판하여 하염없이 좌절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것이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새벽하늘을 보는 모습에서, 여전히 답답함이 가시지는 않았으나 그럼에도 무언가 희망의 빛을 찾아 보고자 하는 상념의 흔적이 느껴진다.

#### IV. 맺음말

두곡은 젊은 시절에 커다란 시련을 겪었다. 이때의 경험이 말년까지 많은 영향을 끼쳤던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인생 후반기에 창작한 것으로 짐작되는 시에서, “어려서 學文하면서 致澤을 기약하고, 몇 번이나 經史에서 成康을 읊조렸던가? 지금은 백발에 달리 재주 없으니, 갈 길이 막혀 더욱 미쳐 감을 스스로 비웃네.”<sup>19)</sup>라고 하여, 젊은 시절 꿈꾸었던 삶이 기대한대로 실현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였다. 致君澤民을 이루고 小康한 세상을 구현하는 것이 기대한 바였으나, 내란과 외침이 반복되고 중화의 문명이 무너진 세상에서 생애 전반기를

19) 洪宇定, 『杜谷集』 권3, 「次韻 [三首]」.

보내면서 결국 出仕를 포기하고 처사로 살아가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자신이 처한 때가 無道한 시절이라고 판단하였기에, 차라리 물러나서 道를 지키고자 하였던 것이다.

은둔한 이후로는 예교에 구애되지 않고 탈속한 삶을 유지하였다. 다만 현실에 대한 아쉬움이 때로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곤 하는 것을 피하지는 못하였다. “浮生은 보이는 것이 모두 근심거리, 취중에 잠시 少康이 되네.[浮生滿目都憂惱, 醉裏俄頃是少康.]”<sup>20)</sup>라고 노래한 시에서 이런 심사를 읽어낼 수 있다. 그러나 아쉬움은 있을지언정 이것이 때늦은 후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직 그가 마지막까지 마음에 두었던 것은, 명분을 잃지 않고 도를 지키면서 志士로서 이름을 남기는 것이었다. 부귀를 얻는 일은 처음부터 관심 속에 끼어있지 않았다.

두곡은 별세하기 전날 문명하러 온 벗들에게 시로써 작별하였다. “기가 모여 태어나고 흩어지면 돌아가는 것, 길고 짧을지언정 모두 돌아가네.[氣聚爲生散則歸, 歸何長短盡同歸.]”<sup>21)</sup> 인생의 무상함을 처절하게 경험으로 깨우치고서, 미련을 남기지 않고 초연한 모습으로 한 생을 정리하였다.

20) 洪宇定, 『杜谷集』 권3, 「次韻 [三首]」.

21) 洪宇定, 『杜谷集』 권3, 「臨終口號訣諸友」.

<參考 文獻>

국사편찬위원회, 『승정원일기』, <http://sjw.history.go.kr>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 DB, <http://db.itkc.or.kr>

姜再恒, 『立齋遺稿』(한국문집총간 210집)

安廷球(안정 역), 『(국역)梓鄉誌(順興邑誌)』, 紹修博物館, 2009.

李象靖, 『大山集』(한국문집총간 226집)

한국고전번역원, 『影印標點)韓國文集叢刊 해제』 8집, 2010.

洪宇定, 『杜谷集』(한국문집총간 속26집)

洪宇定(홍승균 역), 『(국역)두곡선생문집』, 두곡선생문집역간위원회, 2013.

## Abstract

*A Study on the Life and the write poems of Doogok(杜谷)  
- Focus on Cheonan(天安) Exile Period / Shin Young-ju\**

Poetry and prose of Dugok Hong Woo-jeong is strong, unique and powerful. Especially, it is a literary artist who is evaluated as excellent in poetry. He did not pay attention to the law of poetry, and said that he did not decorate it gorgeously. Then he said, “There are few poets since Dubo, Who will succeed after millennia?” He wanted to be a successor to the duo. Hong Kyung-Shin(洪慶臣) had read his poetry and praised his knees. “It is a place that can not go by the power of man” Cho Guk-bin(趙國賓) was also amazed. “It is the skill to preserve the country.” We can see that his poetry is at an excellent level. There may be various evaluations of the level of poetry achieved by Dugok. However, it is clear that his poetry made the world poets surprised. This paper has examined the life of Dugok. Then I looked at his unique poems. In particular, analyzed a few poems that were created during the time when they were exiled to the Cheonan.

**【Key words】** Doogok(杜谷), Hong Woo-jeong(洪宇定), Hong Ga-sin(洪可臣), Sungjeong Cheosa(崇禎處士), Gubong Seodang(九峯書堂)

투고일 : 11월 23일, 심사완료일 : 12월 8일, 게재확정일 : 12월 12일

\* Sungshin University, Professor / syj@sungshin.ac.kr